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대림 제3주일·자선 주일

가톨릭마산

자선주일

자선주일은
국내의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천주교 마산교구 사회복지국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강론

성탄 준비물

구세주 예수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할 길목에서 교회는 자선 주일을 지내며 마음가짐을 추스르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사순 시기가 시작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성당 문이 닫히고 열리기를 반복하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확진자 숫자의 증감에 따라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기를 거듭하며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코로나19에 묶여 삶의 활력과 기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우울한 처지에 묶여 ‘너’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하면 ‘나의 우울은 더 깊은 심연으로 ‘나’를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며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이라는 현상이 우리를 감싸 안은 듯합니다. 웃을 일이 줄어들고 작은 불안에도 크게 반응하며 우울을 키워가게 됩니다. 기쁨, 평화를 바라지만 이런 불안의 자리에 기쁨, 평화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위험에 계속 빠져 있지 않도록 사도 바오로는 오늘 독서에서 “형제 여러분,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1테살 5,16-18)라고 테살로니카 교회에 말씀 하셨듯이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성탄을 맞이하며 참된 기쁨과 평화가 우리를 채워주시길 청합니다. 오늘 자선 주일은 그 기쁨과 평화의 길로 가는 작은 길을 하나 내놓고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에게 자선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자선은 ‘나’에게서 좀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너’에게로 시선을 돌릴 때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이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인 ‘너’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너’와 조금이라도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음에 기뻐하며 어둠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구원의 희망 속에 기다리는 은총 가득한 대림 시기 되시길 기도 드립니다.



최훈 타대오 신부 | 교구 사회복지국장



제 1 독 서	이사 61,1-27,10-11
화 답 송	◎ 내 영혼이 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네.
제 2 독 서	1테살 5,16-24
복 음	요한 1,6-8,19-28

주일 진레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과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

박재찬 안셀모 신부/ 분도 명상의 집

대림 시기입니다. “대림이 무슨 뜻입니까?”라고 물으니 어떤 분께서 “클 대” ‘기다릴 림’ 성탄을 기다리는 가장 큰 기다림의 시기 아닙니까!”라고 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대림이란 한자 말은 ‘클 大’ ‘기다릴 림’(기다릴 림) 자는 있지도 않습니다. 이 아니라, 대림待臨은 ‘기다릴 대’ ‘임할 림’이라고 하여 ‘(주님의) 임하심을 기다림’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례적으로도 주님의 첫 번째 오심, 즉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기, 그리고 주님의 두 번째 오심, 즉 종말을 기다리는 시기로 설명을 하면 되기에 대림이라는 말은 그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자적 풀이는 대림을 뜻하는 라틴어 adventus라는 단어의 의미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Adventus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는, 영어로 arrival, ‘도착’을 뜻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기다림’이라는 단어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 adventus의 본래의 의미인 ‘도착’ ‘도래’ ‘출현’의 풍부한 의미에 대해서는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다림’이란 말은 웬지 ‘우리 인간 편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반면, ‘도착’이라는 말은 ‘하느님 편에서 우리 인간에게 이미 오셨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로 하였고, 이미 오셨습니다. 영원에 계신 그분께서 이미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여전히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하심을 깨닫는 것이 바로 대림 시기의 신비를 사는 것입니다. 즉, 저 멀리 우리와는 가까이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길 기다리는 시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분으로 살기 위해 새로운 탄생을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대림 시기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없이 대림 시기를 맞이하고 성탄을 보내왔습니다. 어떤 해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어떤 해에는 미지근한 마음으로, 그리고 성탄의 기쁨이 느껴지지 않으면 대림 시기를 잘못 보내서 그렇다고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대림 시기를 제대로 보낼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해 제가 느끼는 대림 시기와 성탄 시기에 대한 묵상이 이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사실 대림 시기도, 성탄 시기도 따로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기다림의 날들이요, 매 순간이 주님께서 저에게 오시는 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대림 시기에는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 계시다가 12월 24일 밤이 되면 쨌!!!” 하고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당신 성령을 통해 매 순간, 모든 곳에, 모든 것 안에 계시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 안에 살아계십니다. 설령 제가 그분을 잊고 지내더라도 말입니다. 제가 오늘 주님의 현존을 깊이 체험할 때, 그 순간이 바로 저의 성탄입니다.

요컨대, 우리가 자신 안에 태어나실 주님을 위해 자신을 내어 놓고, 비워내는 오늘이 바로 대림이요, 사순인 것입니다. 오늘 이기적인 자신의 마음과 욕심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선택할 때 대림은 그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죽고 다시 태어남을 체험한 이들에게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모든 것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심을 믿음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깊이 나아간 이들에게는 오늘이 대림이요, 오늘이 성탄이요, 오늘이 성금요일이요, 오늘이 바로 주님 안에서 충만한 은총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오늘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소소한 일상이 바로 하느님 안에서의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며 감사하는 천국에서의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의 교육·문화·복지를 이끌어온 함안성당

황광지 가타리나

상여를 메던 고등학생 이젠 본당의 원로

1932년 설립하여 6칸짜리 목조와가를 지어 사용하던 함안성당은 1939년에 가야읍에서는 보기 드문 고딕식 건물을 신축하였다. 구 성당 건물에는 야학을 열어 한글을 가르치고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그 후 그 건물을 이용하여 삼일 유치원을 설립하여 지역 유아교육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삼일 유치원은 복지 유치원으로 바뀌었다가, 군북 어린이집으로 변경되었고, 현재는 성모 어린이집으로 운영이 이어졌다.

지역의 교육·문화가 성당에서 태동하여 성당 중심으로 발전해 나갔다. 이 종철 베나시오 신부가 신학생 시절 이곳에 한참 머물렀다. 신학생이 노래를 지도하고 연극을 연출하는 동안 성당의 청년들은 성가나 지휘도 배우고 연극에 출연하면서 본당의 일꾼으로 성장했다. 성탄 성극을 공연한 후 극찬을 받으며, 지역으로 나가 앙코르 공연을 하는 감동을 가슴에 안았다.

지역사회를 향한 복지도 성당에서 맡았다. 함안은 비가 오면 항상 그야말로 '물구덩이'였다. 성당 입구까지 물이 찼고, 시장통 등 낮은 지역 사람들은 냄비를 들고 지대가 높은 성당으로 찾아들었다. 신자, 비신자 구분 없이 물을 피해 온 사람들을 거두었다. 결혼식 또한 비신자라도 예식을 치르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힘닿는 데까지 봉사했다. 특히 가난한 집에서 초상이 나면 상여를 지는 일이 허다했다. 고등학생 때부터 상여를 메고, 사제의 일을 열심히 도왔던 젊은이들이 이제 본당의 원로로 중심을 잡고 있다.

소나무에 얹힌 잊지 못할 사연

1930대 말에 건축했던 성당은 이 지역에서 서양 건물의 상징 같은 건물이었지만 몹시 낡고, 좁아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결국 신자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매를 걷어 올렸다. 건축기금을 모으기 위해 여러 본당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했다.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건립한 새 성전은 1997년 6월에 봉헌식을 올렸다. 그동안 조경공사를 통해 짜임새 있는 정원을 꾸몄다.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을 안은 성 요셉상이 잔디밭을 아우르며 함안성당의 풍광을 평화롭게 만든다.

또 하나, 대문 왼쪽의 수문장처럼 서 있는 소나무에 대한 사연을 아는 신자들에게는 뜨거운 추억이 담겼다. 1998년 초 겨울이었다. 기증받은 소나무를 산에서 캐서 가져오라는 주임 신부의 지시에 청년 여러 명이 달려갔다. 굴삭기와 전문가도 불렀지만 도무지 뿌리의 끝이 나타나지 않았다. 불을 밝히고 추위에 떨며 씨름을 했다. 여성 신자들은 밤참을 해다 날랐다. 밤을 지새우고 파낸 소나무를 싣고

옛 성당과 승리의 동정 성모마리아



이동하는 데도 난관이 무수했다. 논두렁을 눌러 임시 길을 만들고, 도로에 설치된 아치를 몇 개나 들어 올려야 했고, 가는 데마다 걸리는 전깃줄을 자르고 지나가야 했다. 지금으로써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 그 시절에는 간절함으로 줄을 대면 통하는 때였다. 두 그루의 소나무였는데, 하나는 시름시름 앓다가 끝내 죽었다. 남은 하나도 뿌리를 내리고 생기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성당을 지키는 듯 우뚝하다. 소나무와 씨름했던 신자들은 정으로 결속한 아름다운 그때를 잊을 수가 없단다.

좋은 영향력의 보고寶庫

본당주보 ‘승리의 동정 성모마리아’가 높이 세워져 동네를 인자로이 바라보시던 함안성당은 옛날부터 좋은 영향력을 지역에 퍼뜨렸다. 60년대에는 해외에서 지원된 구호 물품을 성당에서 지역으로 나누는 거점이 되었다. 어려운 사람이면 비신자라고 외면하지 않았으므로 절로 전교가 되었다. 함안성당은 이즈음 어렵사리 마련한 자금으로 공동묘지 땅을 2,400여 평 구입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신자들 비신자들 선을 긋지 않고 묘를 서도록 받아들였다.

약국을 경영하는 한 신자가 15,000평에 달하는 함안 입곡의 땅을 사서 기증했다. 그 땅에 (재)범숙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로사의집’을 건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당시 장애인 시설이 들어온다니 지역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삽을 뜰 수 없는 지경이었지만, 함안성당의 신자들이 손닿는 곳에 힘을 보내고, 기도하며 복지시설을 만들어 냈다. 또 함안지역자활센터도 20년째 운영하며 지역의 저소득층 주민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성당 바로 앞에 원룸이 들어서게 되었을 때도 신자들은 힘을 뭉쳤다. 가가호호 서명을 받으려 다녔다. 서명을 받기 위해 진흙 바닥에 무릎까지 꿇었던 간절함으로 결국 원룸 건축은 무산되었고, 공용주차장으로 변경되었으니 성당을 위해서도 동네를 위해서도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른다.

100년을 바라보며

박 요한 신부를 비롯해 이 요엘 사목회장은 ‘본당순례’의 기회에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랐다. 전임 회장 조 다니엘, 강 야고보, 심 스테파노, 김 요한과 전임 부회장 강 세라피나와 사무장 홍 아나타시아도 자리에 함께했다. 설립 88년이 된 함안성당은 진즉 100주년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100주년 기획부장 권 엘리시오도 구석자리에서 선배들의 옛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본당 사정을 훤히 꿰고 있는 사무장은 원로들의 기력이 생생할 때 역사를 정리하고 기록해야 한다며 마스크 속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함안지역의 큰집으로서, 형님성당으로서 자부심을 가진 함안성당이다. 12개의 공소를 관할하며 동분서주했던 복음의 산실이다. 의령본당, 대산본당, 칠원본당을 분가시켰던 땀과 환희와 영광이 고스란히 역사 속에 담겨있다. 이제 90년을 향하고, 100년을 바라보며 다시 길을 묻는 시간이 되었다.





교구/본당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일시: 12월 16일(수) 16:00

장소: 교구청

교구청 직원 연수

일시: 12월 18일(금) 09:00

장소: 교구청

▶직원 연수로 인해 교구청 휴무입니다.

2022년도 신학교 지원자 면접

일시: 12월 20일(주일) 15:00

장소: 교구청

고3 피정

일시: 2021년 2월 20일(토) 13:00~21일(주일) 14: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055·221·1891

주제: 잃어버린 나를 찾는 여정(중독과 회복)

강사: 홍성민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대상: 고등학교 졸업생

참가비: 1인 6만 원

(교구사무비 면제 본당 3만 원)

준비물: 필기구, 미사 준비(봉헌금), 세면도구(수건), 간편한 복장(따뜻한 옷), 텀블러, 마스크

신청: 21년 2월 7일(주일)까지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청년부' 검색

위원회/기관/단체

민족화해위원회

일시: 12월 16일(수) 19:00

장소: 교구청

문의: 교구 민화위 055·261·8201

교구 평협 위원 회의

일시: 12월 18일(금)

장소: 교구청

문의: 교구 평협 055·249·7114

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외국인 공동체 미사

영어 미사

창원: 주일 15:00/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진주: 주일 14:30/ 칠암동성당

거제: 토요일 19:30/ 장평성당

베트남어 미사

창원: 주일 18:00/ 명서동성당

진주: 주일 12:30/ 칠암동성당

통영: 2, 4주(토) 19:30/ 대진성당

거제: 1, 3주(토) 19:30/ 국산공소

동티모르 미사

통영: 3주(토) 20:30/ 태평동성당

거제: 3주(토) 22:30/ 국산공소

진영: 3주(주일) 17:30/ 진영성당

문의: 창원이주민센터 055·275·8203

수도회

재속프란치스코형제회 지원자 모집

성프란치스코의 가르침과 영성에 따라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실천하고자 교황청이 인준한 회칙과 회헌으로 서약생활을 하는 공동체

대상: 만55세 이하의 세례 받은 신자

문의: 봉사자 010·5230·1420,

서기담당 010·5911·8792

나자렛예수수녀회 피정 및 교육

피정: 개인 또는 20명 이내 단체(말씀묵상 피정, 전례피정)

교육: 첫영성체 교리 교육, 실천 교리 교육,

전례봉사자 교육

문의: 010·2116·4903

기 타

양업고등학교 "행복한 겨울캠프"

일시: 2021년 1월 8일(금)~10일(주일) 2박 3일

장소: 양업고등학교(충청북도 청주시) 043·260·5078

대상: 중학교 1~2학년/ 참가비: 15만 원

접수: 양업고 홈페이지-12월 22일(화)부터 선착순

바오로말 성경학교 학생모집

과정: 입문/ 중급/ 성바오로 신학영성 중 선택

방법: 우편과 이러닝(동영상 강의) 성경공부

원서: <http://uus.pauline.or.kr>

마감: 2021년 1월 31일(주일)까지

문의: 02·944·0819~24, 010·5584·8945

2021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원서접수: 11월 16일(월)~2021년 2월 10일(수)

(우편신청가능)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

(만 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문의: 02·745·8339

홈페이지: ci.catholic.ac.kr(원서다운가능)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 모집

기간: 2021년 2월~12월(2월 예비학교)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혜택-교육비, 기숙사무료, 수당지급

가톨릭 트래블 올레길 425Km 24박 25일 제주교구 성지 7곳 순례 일정 289만원(2021년 1월 6일/매월 출발) 070-4086-0207 www.catravel.co.kr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Enjoy your life AV Team (주)AV팀 Since 2005~ avteam.co.kr 음향, 영상 시스템 설계/ 시공/ 방문 점검 및 컨설팅 김지훈 바오로 010-3243-5655	제주성지순례 3박 4일 32만원 성지 7개, 신부님 동행, 각 지역 공항 출발, 특2급 호텔 마르코 투어 010-5150-2625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수맥홍(홍)집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중 1588-5335	신세계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일 립

문의: 02·828·3600/ 대상: 15세 이상 남

※ 최근 5년 평균 취업률 89.2%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17:30, 19:30~21:00

장소: 중동성당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
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중동성당 사무실 055·298·4657

최재상 신부 8번째 개인전

일시: 12월 11일(금)~2021년 1월 3일(주일)

장소: 연아트 갤러리(창원 시티세븐 43층
CLOUD)

호계본당 제15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문창복(엘리자오)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조훈(토마스)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김경자(베네딕도)

총무분과위원장: 김병욱(요한)

재경분과위원장: 윤재환(바오로)

기획분과위원장: 임완택(요셉)

전례분과위원장: 임정희(파비올라)

복음화분과위원장: 원경숙(레지나)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정연보(마리아나)

가정사목분과위원장: 성기열(올리아노)

청소년분과위원장: 김순철(마티아)

시설관리분과위원장: 강상수(야고보)

교육분과위원장: 김성진(바오로)

홍보미디어분과위원장: 권흥국(베드로)

구역분과위원장: 오정옥(아가다)

수산본당 제13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하성윤(스테파노)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이보완(안셀모)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김순자(엘리사벳)

총무분과위원장: 임연길(골리아노)

재경분과위원장: 김용호(대건 안드레아)

전례분과위원장: 김순덕(보나)

구역분과위원장: 김삼순(테레사)

복음화분과위원장: 강숙희(수산나)

사회복지분과위원장: 김보애(마리아)

시설분과위원장: 양기덕(빈첸시오)

성심인애원 직원 채용 공고

채용분야: 생활재활교사

접수: 12월 15일(화)까지

근무지역: 경남 산청

※ 자세한 내용은 산청성심원 홈페이지(<http://www.sungsim1.or.kr/>) 참조 바랍니다.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12월 19일(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신간소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회년살이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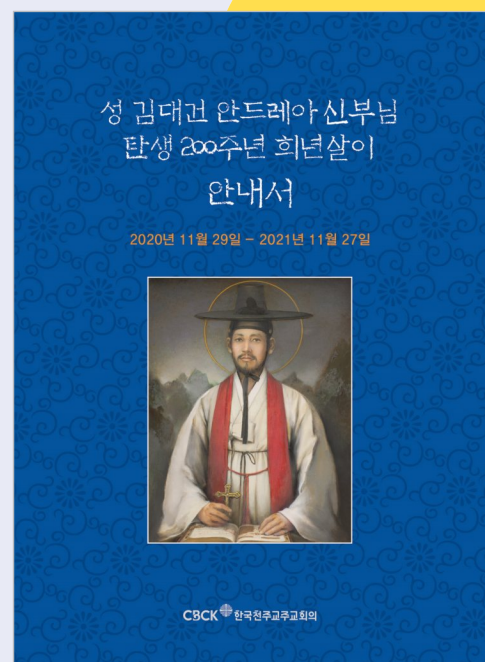
첫 한국인 사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회년”(2020년 11월 29일~2021년 11월 27일)을 맞아 마음과 목숨을 다 하여 하느님을 사랑하신 김대건 신부님의 영성을 되새기고자 회년살이 안내서를 마련하였습니다.

회년 기도, 김대건 신부님의 서간과 함께 신부님의 신앙과 사랑을 묵상하는 9일 기도, 전대사 수여 조건과 전대사 수여 성지와 성당 목록을 수록하였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처럼 “당신이 천주교인이요?” “그렇소. 나는 천주교인이요.”라고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일상에서 용기 내어 살아가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분류: 단행본 ·면수: 120면

·발행일: 2020년 11월 18일





낙원의 상실

김영선 루시아 수녀/ 광주가톨릭대학교

뱀의 유혹을 받아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은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뱀은 그 열매를 따 먹으면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유혹하였지만 실상 그들이 열매를 따 먹고 나서 보게 된 것은 본래의 가치에 대한 왜곡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하느님께 대한 의심과 불신으로 비뚤어져서 만사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땅의 조화로운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틈이 생기게 된 것부터 언급됩니다. 열매를 따 먹기 전에 사람과 그 아내는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리거나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령을 어긴 다음부터는 알몸이 부끄러워 무화와 잎을 엮어 만든 두령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곧 그들 사이에 거리가 생기게 되었고, 각자 서로에게 감추고 싶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이 거리감은 그들 서로 간의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느님과도 거리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저녁 산들바람 속에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지만 하느님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찾아 나섭니다. “너 어디 있느냐?” 하느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당신을 피하려 드는 사람을 보시고 하느님은 금지된 열매를 따 먹었느냐고 물으십니다. 사람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과 그 아내는 잘못을 시인하는 대신 제각기 자신들의 잘못을 하느님께서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와 뱀의 탓으로 돌립니다.

하느님의 명령을 어긴 죄에 대한 벌로 뱀은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 다니며 먼지를 먹게 되고, 뱀과 인간은 서로 적대적이 됩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뱀은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창세 3,15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마를 쳐 이기고 궁극적으로 악의 세력을 없애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여자는 임신과 출산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남편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며, 남자는 축복이었던 노동으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금령을 어긴 결과로 땅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에 금이 가게 된 까닭입니다.

창세기 3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 저자의 놀라운 통찰이 드러납니다. 사람이 짓는 죄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 자연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죄는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잃고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와 그에 따른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사람과 그 아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통찰은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과 죽음, 남성 지배 체제를 성경의 저자는 죄의 결과로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벗어날 수 없는 인류의 숙명이 아니라 구원의 여정을 통해 오히려 극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인간이 에덴동산에서 추방된 뒤에 하느님께서 동산에 커룹들과 번쩍이는 불 칼을 세워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낙원에 이르는 길은 막혀 버렸지만 우리 죄의 사함을 위해 몸소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을 통하여 이 길은 다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